

##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에 대한 정신장애인의 인식과 경험\*

박향경\*\*·문하늬\*\*\*

###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Group-homes Residential Environment by People with Mental Disorder\*

Hyangkyung Park\*\*·Hani Moon\*\*\*

**요약** : 이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 인식과 경험을 통해 앞으로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지원 시 고려해야 할 환경 조건 같은 기초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동생활가정 4곳을 눈덩이표집법으로 선정하였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 남녀 각 4명, 총 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수집은 심층면접방법이며, 자료분석은 주제분석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1) 지금보다 더 나쁘거나 더 좋았던 주거환경, 2) 사람답게 사는 삶을 알게 됨, 3) 살면서 깨닫는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과 욕구, 4) 사생활과 공동생활의 경계와 조화, 5) 부대끼며 기대며 함께 살아감, 6) 바깥을 향한, 바깥에 의한 시선, 7) 내 생활과 삶이 바뀔 등 총 7개의 주제로 분석되었다. 따뜻하고 자유로운 집 같은 분위기의 공동생활가정 경험은 평범한 일상과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지원해주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좁은 면적과 대인관계, 사생활 보장 등 어려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이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곳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시설설치기준과 세부면적기준, 외부환경 등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지원 시 고려해야 할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 공간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basic data on improvemen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group-hom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to be considered when supporting the housing through perception and experience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For this purpose, four group-home households were selected through snowball sampling and eight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living there (four women and four men) were participating in this research. Depth interviews were employed for data collection and then a subject analysis was applied to the collected data. The result of the analysis identified the following seven subjects: 1)the residential environments that were better or worse than now 2)knowing what living like a decent human being means 3)interests and needs for residential environments that I've learned as I've been living 4) boundary and harmony between private and community lives 5)living together by leaning on each other 6)the perspective toward the outside and perspective from the outside and 7)changes in my living and life. The experience of living in a group-homes with a warm and lively atmosphere turned out to be supportive of the ordinary daily lives and their preparations for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such problems as narrow building areas and difficulties to secur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privacy were also identified.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group-homes residential environments should be established as the places to help the recovery of the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and the preparations for their future lives in communities. As its conclusion, this research also suggests several important factors, such as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detailed area standards, and outside environme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providing group-homes and housing support for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KeyWords** :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Group-Homes, Residential Environment, Space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3A2074955)

\*\* 동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Dongyang Univ.), 제1저자

\*\*\* 광운대학교 SSK 정신건강과 지역사회 연구센터 연구원(Researcher, SSK Research Center For Mental Health and Communal Society, Kwangwoon Univ.), 교신저자(E-Mail: hnmoon@kw.ac.kr, Tel: 02-940-5557)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거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의 근간이 되는 환경이자 정체성을 형성하고 담아내는 곳으로, 사람은 안식처로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기를 원하며 꿈꾼다. 좋은 주거에 대한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결국 그곳에 사는 사람들 각자 주어진 주거환경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느냐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거환경은 일정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내외부의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물리적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심리적, 사회적 환경을 의미한다(Wahl, 2001).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의 요소들은 거주자의 정신건강, 안정감, 자아존중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강현아, 2010; 전신현, 2004; 최병숙·박정아, 2012).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일반적인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설의 건축공간뿐만 아니라 입지조건, 주거환경의 변화로 인한 거주자들의 변화 등 거주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박향경·권자영·최명민, 2015; 안은희, 2014; 이광수·이정수, 2016; 이복실 외 2013). 그러나 그동안 장애인, 노인 대상 시설들이 주거환경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흐름 속에서도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의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았다.

정신장애인 주거제공시설로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대상은 정신재활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이다.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완전한 독립은 어려우나 스스로 약물관리, 일상생활관리 등이 가능한 정신장애인 4~6인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준비와 이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재활훈련시설로(보건복지부, 2019a),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 20여 년 동안 주거시설로서 주거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오랜 입원 생활을 하는 동안 공간과 시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폐쇄된 일상을 살아왔거나(장혜경·이용표·박경수, 2015),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삶을 살아온 정신장애인에게 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교두보가 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즉,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생활은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에,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은 가능한 시설의 특성이 배제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의 회복과 자립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소들이 잘 반영된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까닭에 공동생활가정의 물리적 주거환경에 대해 시설평가 항목에도 가정과 유사한 안락한 환경, 내부환경의 쾌적성, 유해환경의 인접 여부 등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 조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9b).

또한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주거환경이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Evans, 2003; Nelson et al., 2007). 주거환경은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회복, 독립생활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질 낮은 주거환경은 재입원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wne and Courtney, 2004). 또한 지적장애인생활시설의 주거환경이 대규모생활시설에서 소규모거주시설로 변화되었을 때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전반에서 자발성이 증진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었으며, 소속감과 이타적 상호작용도 증진되었다는 보고도 있다(박향경·권자영·최명민, 2015). Shepley et al.(2013)은 정신·행동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시설 환경에서 이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 - 개인공간과 밀도, 오감 즉 감각의 고려, 스트레스에 대한 선택과 조절, 공간의 명료성과 조직화, 인락하고 집과 같은 환경, 양질의 잘 관리되고 유지된 환경, 예술작품이나 음악·잡지 등 머리를 식힐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positive distraction), 사회적 상호작용, 자연과 자연광의 접근성, 안정, 감독(supervision) - 들을 고려해야 할 요소들로 제시하며, 이는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한다(Shepley and Pasha, 2017: 재인용 28~37).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주거환경과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에 대한 간과는 정신건강영역에서 환경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해 소홀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신장애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주거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거환경 조성의 방향과 방안 마련에 유용하리라 본다.

이에 이 연구는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에 대한 정신장애인의 경험을 탐색하여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재활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이 주거환경 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논의하고 주거환경조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에 대한 경험을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며, 연구질문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 II. 문헌연구

### 1.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 특성

공동생활가정은 2017년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으로 기존 주거시설에서 공동생활가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정신재활시설로, 현재 시설수는 전국 188개소로 정신재활시설 중 가장 많으며, 입소이용자는 1,253명(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019)이다. 공동생활가정은 가정적인 분위기와 환경 조성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 대인관계 등을 장려하고, 자립생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남세현 외, 2015; 보건복지부, 2019a; 최고야, 2018).

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에 근거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 설치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은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 편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재활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공동생활가정이 갖춰야 할 공통기준에는 피난이나 안전, 자연채광과 냉난방, 통풍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으로는 응접실, 침실,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사무실, 상담실 등 주거제공시설로서의 필요한 기본공간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법 개정 전과 개정 후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시설 입소정원이 최대 10인에서 최대 6인으로 조정된 점으로, 이는 입소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법 개정 전보다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1인당 거실 바닥면적은 법 개정 전과 4.3제곱미터로 동일하지만 입소정원에 따라 침실당 정원이 법 개정 전 6인 이하에서 법 개정 후 2~3인 이하로 감소하여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은 법 개정 이전보다는 증가하였다.

공간의 면적에 대한 시설기준은 거실 면적으로, 거실 면적은 입소자가 24시간 휴식, 취침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는 응접실과 침실(복도·통로, 사무실, 상담실, 다락,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등은 제외)의 면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이용하는 침실과 개방공간인 거실(응접실) 면적 합을 의미한다. 시설설치 기준에서는 침실과 거실의 면적 합을 정원으로 나누어 1인당 4.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외 개별공간들의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이를 외국의 장애인 주거시설에서 제공하는 거실 면적과 비교하면, 일본은 1인당 거실 9.9제곱미터(가구나 집기 제외), 영국은 1인당 침실과 거실 면적의 합이 14제곱미터로 제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관련 기준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이복실 외, 2013; 이광수·이정수, 2016).

또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에는 주거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시설환경 지표로 통해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거주자가 생활하는 데 적절하며 안전한 환경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유해환경 인접여부, 가정과 유사한 안락한 환경, 개별가구 및 집기, 내부환경의 쾌적성, 안전과 보호를 위한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 및 환경 지표의 세부 항목들은 공동생활가정의 주변환경과 생활의 안전, 가정 같은 환경, 청결한 생활 등을 중시하고 있고, 이용자의 편리와 편의, 안전 등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그동안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거제공시설로서 주거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삶을 지원하고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시설로 공동생활가정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에 대한 검토와 향후 개선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2. 거주자의 삶과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의 중요성

장애인, 노인 등 자유로운 이동이나 이주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머물고 생활하는 거주지의 주거환경은 삶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에서 주거환경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은 거주자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옥미, 2018; 최희용·서은혜·전희정, 2020). 먼저 거주 장소에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이 입원 환자에 비교할 때 높으며, 독립성과 사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Brunt and Hansson, 2004). 주생활공간은 아니나 이용시설의 경우에도 물리적 환경은 이용자들의 이용만족도와 이용자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치유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부환경의 변화는 이용자들의 스트레스 요인 개선과 정서적인 안정, 긍정적인 상호작용 증진 등의 변화를 보였다(최명민·이해경, 2015). 또한 장애인생활시설의 소규모화에 따라 가정집과 같은 주거환경으로의 전면적 변화는 거주 장애인들의 자발성과 사회성 등을 증진함으로써 전반적인 시설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는데, 이는 소규모의 가정적인 분위기의 주거환경이 삶의 질과 중요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박향경·권자영·최명민, 2015). 소규모의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와 주거환경은 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거주자의 정주감을 높이는 데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을 운영자 중심이 아닌 거주자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때 거주자들의 만족이 높아지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은령·이은미, 2012).

또한 물리적 주거환경 못지않게 주거환경의 영

역에서는 심리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주거환경 역시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예를 들면 공동생활가정이 제공하는 사회적 환경이 거주자의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촉진하여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정현주, 2019)는 정신장애인이 공동생활가정을 거점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기회와 사회적 교류를 자연스럽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Forchuk et al., 2006; Kloos and Shah, 2009; Newman and Goldman, 2008). 이와 같이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는 공동생활가정의 심리사회적 환경은 함께 생활하는 거주자 간의 상호 지지와 증상의 이해, 일상생활훈련을 같이하면서 자아존중감도 함께 높아지게 한다(최고야, 2018). 이러한 이유로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은 거주자의 개인생활 보장 못지않게 공동생활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환경과 요건을 함께 갖출(권오정, 2012; Randall, 2003)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거주자의 시설 생활 목적은 대상에 따라 회복과 치유, 사회복귀 등 다양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거환경은 거주자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은 거주하는 대상자의 특성과 행태들에 적합하고, 시설의 목적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주거제공시설이 단순히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거주자의 삶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자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이 거주자의 공동생활가정에서 적응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인 안정과 향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

에 대한 정신장애인의 인식과 경험의 탐색은 현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방향성과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질적연구

이 연구는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에 대한 정신장애인의 인식과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자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질적연구방법은 어떤 연구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깊이 있는 탐색이 요구될 때 사용하는 방법(Creswell, 2007)으로,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이 경험한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과 그 인식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귀납적 접근인 질적연구방법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질적연구의 수행에는 다양한 접근방법들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구성하는 주제와 의미들을 탐구하고자 하여 특정 접근방법 대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질적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대상

##### 1)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이다.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에 대한 경험이 남녀가 다를 수 있을 것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남녀 공동생활가정 각 2곳, 총 4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정신장애인이 시설별 2명씩 총 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들은 주로 시설장의 연구소개에 관심을 보인 정신장애인들이며,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동료 거주자의 참여와 연구자의 연구소개를 들은 후 참여 의사를 밝힌 정신장애인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연구참여자 들은 같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과거의 경험과 거주기간이 달라 다양한 경험을 경험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참여자의 선정 조건은 연구참여 당시 해당 공동생활가정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공동생활 주거환경에 대한 경험을 구술하는데 인지적인 장애가 없는 자로 하였다.<sup>1)</sup> 6개월 이상의 거주기간은 공동생활가정의 물리적 주거환경과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심리적, 사회적 주거환경인 관계 경험 등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간이라 사료되어 정하였다. 그런데 '연구참여자 B'의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에서는 5개월의 거주기간이나 이전 공동생활가정 경험이 있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36개월 이상 현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해온 '연구참여자 C·F·G'의 경우, 연구참여 당시 독립주거, 지원주거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1) 연구참여자 들은 인지장애는 없으나 발병 후 10년 이상 정신장애를 갖고 생활해온 정신장애인으로, 정신장애의 특성 중 하나인 사고장애로 인하여 사고의 단조로움과 어휘의 빈곤함 등 표현이 풍부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연구결과에서 연구참여자의 면접 내용 인용 시 다른 연구참여자들과 비교해 표현 정도가 풍부했던 연구참여자 C와 F의 진술을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연구 참여자	성별/나이	학력	현 공동 생활 가정 거주기간 (개월)	총 공동 생활 가정 거주기간 (년)	지금까지 살았던 공동 생활가정 수 (현재 포함)	입소 인원/공동생활가정 정원(명)	진단명	입원 횟수	장애 등급	기초 생활 수급 여부
A	남/65	대졸	10	2	3	3 / 4	양극성 정동장애	4	3	X
B	남/45	대재	5	7	2	3 / 4	조현병	8	3	O
C	남/34	대졸	36	3	1	5 / 5	양극성 정동장애	8	3	X
D	남/55	고졸	12	1	1	5 / 5	조현병	4	3	O
E	여/53	초졸	12	1	1	4 / 5	조현병	0	3	O
F	여/56	고졸	38	6	2	4 / 5	조현병	6	2	O
G	여/61	대졸	36	3	1	4 / 5	양극성 정동장애	3	없음	O
H	여/30	대중퇴	6	1	1	4 / 5	분열형 정동장애	10회 이상	3	O

2) 연구참여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 생활 가정의 개요

연구참여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주체는 개인·사단법인·사회복지법인이었으며, 개소연도는 2005년부터 2018연도로 다양했다. 운영형태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자가 형태로 매입한 경우였으며, 법인 운영의 경우 모두 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있었다. 지역은 모두 일반주거지역의 다세대 밀집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지역별로 경사지, 재개발지역, 공원 근접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설치 층수는 모두 2층이었다. 건축연도가 오래된 경우는 모두 단독주택이었고, 비교적 건축연도가 오래되지 않은 경우는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이었다.

시설 공간은 기본적으로 침실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및 발코니(세탁실, 창고 등),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69제곱미터에서 125제곱미터까지 다양하였다. 1인당 이

용 가능한 공간 면적은 10제곱미터부터 25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영향을 받아 다양했으며,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더 넓은 면적을 제공하고 있었다. 법규에서 제시하고 있는 1인당 거실면적(침실+거실/정원)은 모두 4.3제곱미터 이상으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실면적에 대한 정의가 시설 내 모든 침실과 거실을 포함한 면적이고, 가구나 집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없이 제시되어 1인당 제공되는 면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입지현황은 주로 지하철역에서는 도보 10분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버스정류장은 5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었다. 시설 주변으로 주민센터, 공원, 도서관, 병원 등이 도보로 10분 내외의 접근 가능하며, 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대체로 편리하였다. 연구참여자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의 시설 개요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 연구참여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시설개요

구분	〈공동생활가정 1〉 연구참여자 A, B	〈공동생활가정 2〉 연구참여자 C, D	〈공동생활가정 3〉 연구참여자 E, F	〈공동생활가정 4〉 연구참여자 G, H
개소연도	2018	2017	2007	2005
운영주체	개인	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운영형태	자가	LH 매입형 임대	LH 매입형 임대	LH 매입형 임대
건축연도	2008	2015	1994	1991
입지특성	다세대 주거밀집지역, 경사지	다세대 주거밀집지역, 재개발지역	다세대 주거밀집지역, 공원, 호수 근접	다세대 주거밀집지역, 경사지
건물용도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정원	남성 4인 (현재 3인 거주)	남성 5인 (현재 5인 거주)	여성 5인 (현재 4인 거주)	여성 5인 (현재 4인 거주)
설치층수	지하 1층 ~ 지상 4층 중 지상 2층	지하 1층 ~ 지상 5층 중 지상 2층	지하 1층 ~ 지상 2층 중 지상 2층	지하 1층 ~ 지상 2층 중 지상 2층
공간구성	침실1, 침실2, 사무실, 거실, 주방, 화장실, 발코니	침실1, 침실2, 사무실, 거실, 주방, 화장실, 발코니	침실1, 침실2, 사무실,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침실1, 침실2, 사무실, 거실, 주방, 화장실1, 화장실2, 세탁실, 베란다
사설면적	69.72㎡	53.54㎡	107.46㎡	125.81㎡
실별면적 (치수 기준면적)	침실1: 12.96㎡ 침실2: 7.02㎡ 사무실: 8.64㎡ 거실: 21.06㎡ 주방: 11.40㎡ 화장실: 3.60㎡ 발코니: 3.24㎡ 현관: 1.80㎡	침실1: 10.56㎡ 침실2: 7.70㎡ 사무실: 1.80㎡ 거실: 16.88㎡ 주방: 8.91㎡ 화장실: 3.15㎡ 발코니: 3.10㎡ 현관: 1.44㎡	침실1: 16.38㎡ 침실2: 12.87㎡ 사무실: 9.90㎡ 거실: 32.60㎡ 주방: 17.26㎡ 화장실: 6.46㎡ 다용도실: 10.98㎡ 현관: 1.01㎡	침실1: 11.52㎡ 침실2: 18.90㎡ 사무실: 13.68㎡ 거실: 37.76㎡ 주방: 14.04㎡ 화장실1: 5.22㎡ 화장실2: 3.60㎡ 세탁실: 2.34㎡ 베란다: 16.05㎡ 현관: 2.7㎡
1인당 면적	17.43㎡	10.71㎡	21.49㎡	25.16㎡
1인당 거실면적	10.26㎡	7.02㎡	12.37㎡	13.94㎡
대중교통	지하철 도보 14분 (730m, 경사지), 버스 도보 2분(100m)	지하철 도보 6분(850m), 버스 도보 2분(160m)	지하철 도보 5분(400m), 버스 도보 3분(250m)	지하철 도보 15분 (1,150m, 경사지), 버스 도보 5분(400m)
편의시설	주민센터, 은행, 공원, 도서관 등	주민센터, 은행, 어린이공원, 도서관 등	주민센터, 은행, 공원, 호수, 도서관 등	주민센터, 은행, 도서관, 어린이 공원, 산 등
의료시설	병원, 보건지소, 보건소 등	병원, 보건소 등	병원 등	병원, 보건지소 등
복지시설	행복지원센터, 아동청소년상담센터 등	데이케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재가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아동복지센터 등

주: 시설의 면적은 시설에서 공유한 도면과 실측 조사를 바탕으로 계산되었음. 1인당 면적은 전체 시설 면적을 정원으로 나누었으며, 1인당 거실면적은 응접실과 침실의 면적을 합산하여 정원으로 나눔. 편의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은 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걸어서 10분, 반경 500m 이내에 분포된 시설들을 조사함.

자료: 각 시설 홈페이지, 건축물대장, 현장조사(실측) 등을 바탕으로 작성함.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9년 8월~10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먼저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을 주제로 한 연구이기에 연구참여자가 생활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주거환경을 관찰, 시설의 도면(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에 대한 허락 포함) 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었기에 먼저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에 친분이 있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장에게 이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소개하고, 서울 지역 공동생활가정 중 한 곳의 시설장을 소개받았다.

이후 이 연구목적을 소개하고 연구참여와 협조에 대한 동의 과정을 거쳐 공동생활가정 방문과 시설도면, 연구참여자 소개 등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눈덩이 표집법을 통해 다른 공동생활가정을 섭외하고, 연구참여자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은 사전에 연구개요, 목적, 비밀보장, 면접에 대한 녹취 등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였으며 사후에 사례하였다.

심층면접은 연구참여자별로 1회 수행되었으며, 50~9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생활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의 방 또는 거실로 다른 사람의 방해가 없는 시간에 이루어졌다. 심층면접 질문은 현재의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 경험서 과거의 주거환경 경험이 준거가 될 수 있어 이전의 생활을 포함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갖고 있었던 생각,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실내, 외부,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등)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연구에 협

조해준 공동생활가정에는 사례하였고, 공동생활가정의 실측도면을 그려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사하였고, 주제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제분석방법은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하나의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질적자료에 내포해 있는 의미, 관계, 맥락 등을 파악하여 자료로부터 주제를 도출해내는 분석 방법이다(김슬옹, 2009; Berg, 2009). 분석과정은 전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어가며 개방코딩을 하였고,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코딩된 자료를 비교, 대조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범주화하였다. 이어 범주화된 주제들과 그 의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탐색하고 전체 결과를 이해하였다. 이 과정은 N-vivo 9을 활용하였다.

### 4. 연구의 엄격성

이 연구는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여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질적연구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자신이 중요한 연구 도구이기에 주 연구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주제와 관련한 이전의 경험, 선이해 등을 점검하고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주 연구자는 10년 이상 정신장애인 재활 분야에 종사하였고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을 접할 기회가 있었으며, 학계에 종사하면서는 정신재활시설 평가 등으로 공동생활가정의 서비스 및 물리적 환경을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접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참여자와 신뢰를 쌓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주 연구자가 과거에 경험한 공동생활가정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편견, 선이해 등을 점검하지 않을 경우 연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염려되어 면접 질문에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자 면접 전후로 점검을 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 대해 공동생활가정 실천현장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1인과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1인의 검토를 받아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 연구의 모든 절차는 주 연구자의 소속기관인 동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1041495-201905-HR-02-01)을 받아 진행하였다.

## IV. 연구결과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에 대한 정신장애인의 경험은 공동생활가정 이전에 생활했던 주거환경이 주된 경험의 준거가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을 통해 사람답게 사는 환경이 무엇인지 경험하였고, 현재의 주거환경은 장래 더 나은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공동생활가정의 공간 배치, 크기 등 물리적 환경들은 사생활과 공동생활의 조화를 요구하는 환경으로, 물리적 환경은 함께 생활하는 거주자들과의 관계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외부의 물리적 주거환경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 사회적 환경도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주거환경으로 드러났다.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에 대한 일련의 경험을 통해 정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과 삶이 변화하였음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 1. 지금보다 더 나빴거나 더 좋았던 주거환경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기 전 원룸이나 고시원, 다세대주택의 반지하층에서 혼자 혹은 정신재활시설 등에서 만난 동료 정신장애인 한두 명과 생활하거나 주거 여건이 좋지 않았던 집에서 가족과 생활하였다. 특히 고시원이나 원룸 생활은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부담되어 늘 다음 달을 걱정해야 했고, 대낮에도 어두운 골목을 다니기에는 무서웠다. 고시원의 경우에는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큼 비좁고 답답했으며 끊이지 않는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열악한 생활이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입소 직전까지 기도원과 요양원 등 방의 형태만 겨우 갖춘 공간에서 여러 사람과 한방에서 지내거나 폐쇄적이고 비인권적인 병원에서 오랜 입원생활, 공간에 비해 정원이 많았던 이전의 주거시설 등 많은 면에서 힘들게 생활하였다. 어려운 형편에 세간살이도 변변치 못했던 집에서 생활했던 연구참여자도 있었지만, 넓고 쾌적한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자신의 방이 있었던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고시원에서 살 때 우울증에 걸렸어요. 2년 정도 살았는데 옆에 소리가 다 들리고 너무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어서.....(연구참여자와의 대화가 끊기듯 이어져 이를 문장으로 재구성함: 연구참여자 A)

〈표 3〉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에 대한 정신장애인의 인식과 경험

주제	하위주제	의미단위	
지금보다 더 나빴거나 더 좋았던 주거환경	경제적인 부담과 열악했던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으로 부담됐던 원룸 생활</li> <li>- 답답하고 소음과 경제적으로 부담됐던 고시원/ 다세대주택에서의 생활</li> <li>- 무섭고 환경이 좋지 않았던 반지하 생활</li> <li>- 좁고 답답했던 기도원과 요양원 생활</li> <li>- 폐쇄적이고 비인권적인 병원에서 오랜 입원생활</li> <li>- 많은 인원과 공간 부족으로 힘들었던 주거시설 생활</li> <li>- 환경은 열악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했던 생활</li> </ul>	
	내 방이 있었고, 지금보다 더 쾌적했던 아파트 생활		
사람답게 사는 삶을 알게 됨	'대충 사는 집'일 거라는 오해가 사라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실이 넓고 깨끗하게 청소된 모습이 좋았음</li> <li>- 거실 등 넓은 공간이 좋았음</li> <li>- 공동생활가정은 대충 사는 집이라 생각했는데 집이 좋아 보였음</li> </ul>	
	가정집 같은 편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껏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li> <li>- 가정집 같은 포근함이 있는 곳</li> <li>- 내 집처럼 (수도, 전기, 가전제품 등) 자유롭게 사용하며 생활할 수 있음</li> </ul>	
	자유롭고 사람답게 사는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롭고, 사람답게 살고있는 공간</li> <li>- 편안하고 안정, 안전감을 느낌</li> </ul>	
살면서 깨닫는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과 욕구	부족한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필요로 구입한 물건으로 공간이 좁아져 미안함</li> <li>- 한 칸의 옷장에 4계절 옷을 수납해야 하는 어려움</li> </ul>	
	좁고, 채광과 통풍이 아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인상은 깨끗하고 좋아 보였으나 살아보니 비좁음</li> <li>- 모든 방이 안방처럼 환하고 넓었으면 함</li> <li>- 좁았던 이전 생활공간, 넓은 곳에서 살았던 경험에 답답한 곳은 싫음</li> <li>- 방의 채광이 나쁘고 좁아 잠잘 때만 들어감</li> <li>- 채광이 좋지 않고 통풍이 어려워 화초를 키울 수 없음</li> </ul>	
	미적인 아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의 기능으로서는 만족하나 미적인 점은 미흡함</li> <li>- 집 자체가 낡았고 실내 장식물 등이 조악하거나 신경을 거의 쓰지 않음</li> </ul>	
사생활과 공동생활의 경계와 조화	방: 혼자서와 함께, 두 감정이 공존하는 주된 생활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자보다는 2-3인이 함께하는 것이 든든하고 외롭지 않아 좋음</li> <li>- 제일 편안하고,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li> <li>-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아쉬움</li> </ul>	
	화장실과 욕실: 보호받고 싶은 가장 사적인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뜻한 물로 혼자서 샤워할 수 있어서 좋음</li> <li>- 화장실/욕실의 부족: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함</li> </ul>	
	거실: 어울림과 호젓함이 있는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 시청, 오락, 대화를 나누며 동료들과 어울리는 공간</li> <li>- 탁 트인 넓은 공간이어서 마음이 편하고 좋음</li> <li>- 늦은 밤 혼자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공간</li> </ul>	
부대끼며 기대며 함께 살아감	때로는 힘이되고, 힘겨움이 되는 동료들	배려 없는 동료의 행동으로 힘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좁은 공간에서 동료의 배려 없는 행동이 곤란하고 어려움</li> <li>- 내 몸이 피곤할 때 부지런한 동료 때문에 쉴 수 없을 때 힘들</li> <li>- 동료의 배려 없는 행동(개인비품 비치 등)을 감내하며 지냄</li> </ul>
		서로 의지 되고 함께 있어 외롭지 않아 좋은 동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료들과 서로 어울리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좋음</li> <li>- 동료들이(특히 함께 방을 사용하는) 있어서 외롭지 않아 좋음</li> <li>- 관계에서 겪는 약간의 힘들음이 있으나 또 힘이 되는 관계</li> <li>- 비좁은 공간에 여럿이 살면 힘들까 봐 공동생활가정 입소를 꺼렸으나, 지금은 동료들이 의지가 됨</li> </ul>
	가족처럼 의지 되는 울타리,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가족이 해주지 못하는 돌봄을 친가족처럼 해주는 원장이 있어 좋음</li> <li>- 동료들과의 갈등을 중재해주는 원장이 있어 안심하고 생활</li> <li>- 재촉 않고 기다려주고 잘 대해주는 원장이 있어서 좋음</li> </ul>	
바깥을 향한, 바깥에 의한 시선	깨끗하고 살기 편한 동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편, 도서관, 은행, 우체국 등 근린시설이 가까워 좋음</li> <li>- 깨끗한 동네 환경에 만족</li> </ul>	
	이웃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이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 불안</li> <li>- 정신장애인 사설임이 알려져 불이익을 당할까 조심</li> <li>-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매사에 오해받지 않으려 노력</li> </ul>	
내 생활과 삶이 바뀜	깨끗한 환경에 스며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깨끗한 곳에 사니 청결과 위도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됨</li> <li>- 더 청결하게 생활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노력</li> </ul>	
	어울려 사는 즐거움을 알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의 여유가 생겨 다른 사람 입장을 헤아릴 수 있게 됨</li> <li>- 남을 배려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li> <li>- 사회성이 좋아짐</li> </ul>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갖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이 체계적으로 되고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게 됨</li> <li>- 정착하여 공동생활가정 정도로 갖추어 살고 싶어짐</li> <li>- 혼자 또는 여럿이 사는 앞으로 주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됨</li> </ul>	

## 2. 사람답게 사는 삶을 알게 됨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연구참여자들에게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폐쇄병동에서의 생활, 비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잠자리, 소음, 정비되지 않은 동네 환경들로 인해 무서움을 느꼈던 이전 생활과 달리 공동생활가정에서는 비로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 1) '대충 사는 집'일 거라는 오해가 사라짐

연구참여자들은 정신장애로 인해 병원, 요양원, 주거시설 등에서 장기간 생활한 경험과 고시원, 원룸, 반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기에, 공동생활가정 입소를 결정하기 위해 방문했었던 날에 보았던 넓은 거실과 깨끗하게 정돈된 실내를 좋은 첫인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생활가정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은 방문 전에 갖고 있었던, 공동생활가정도 시설이기에 '대충 사는 집'일 것이라는 오해를 지울 수 있었다.

여기는 널찍하니까, 그리고 욕실을 딱 열어봤는데 욕실이 딱 이만큼 넓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집이 좋다, 좋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연구참여자 F)

거실이 넓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청소도 깨끗하게 돼있고... 또 창고도 있어요. 2층에 올라가면. 창고에다 짐을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 와서 보는데 넓고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연구참여자 G)

### 2) 가정집 같은 편안함

연구참여자들에게 공동생활가정은 지금껏 살면

서 경험한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이었다. 월세, 수도요금, 전기요금 걱정 없이 가정집 같은 환경에서 마음껏 생활에 필요한 가전기기들을 사용하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집과 같은 포근함을 느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면접을 위해 한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했을 때 연구자도 경험할 수 있었는데, 한 거주자는 냉장고에서 자신이 마실 음료를 꺼내며 연구자를 발견하고 음료를 권하였다.

좋은 건 가정집 같고요, 그냥 편안하고 좋아요.  
(연구참여자 E)

전 마음 편한 게 제일 좋아요. 그동안 너무 시달리고 그냥, 어후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다가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됐는데, 여기 와서 바둑실력이 늘고 영어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고... 여기가 좀 조용하고 차분해서 좋아요.(연구참여자 B)

### 3) 자유롭고 사람답게 사는 곳

연구참여자들에게 공동생활가정의 환경은 이전의 자유가 억압되고 엄격한 규율이 생활을 지배했던 오랜 입원 생활과 요양원·기도원 생활, 고시원이나 반지하층에서 힘겹고 열악했던 생활과 비교하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답게 사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마음 편한 안정감을 느꼈다.

여기가 제가 살아오면서 진짜 제일 좋은 공간이에요. 저한테 가장 잘사는 거예요. 제가 진짜 사람답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기는 처음이에요. 여

기가 제집은 아니지만 원장님이 연어서 이렇게 해주신 집이긴 하지만, 제집처럼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여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연구참여자 C)

### 3. 살면서 깨닫는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과 욕구

‘넓고 깨끗하다’라는 공동생활가정의 첫인상은 살아가면서 서서히 바랬다. 연구참여자들은 특히 일정한 공간에 4~5인이 살면서 겪게 되는 공간의 부족함을 비롯해 소소하지만 아쉬운 점들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 1) 부족한 공간

연구참여자들은 부족한 공간에 아쉬움을 드러내었다. 여럿이 사는 공동생활가정이기에 원하는 대로 다 갖출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부족한 수납 공간 때문에 옷이나 개인물품을 구입할 때도 한 번 씩 더 고민하고 동료들의 양해를 구해 물건을 사야 했다.

제 필요 때문에 선반을 구입했어요. 저만 쓰는 선반이죠. 그거가 또 인제 회원분들에게 피해가 갔죠. 왜냐면 저만 쓰는 것일뿐더러 그걸로 인해서 더 좁아 보이거든요.(연구참여자 C)

#### 2) 좁고 채광과 통풍이 아쉬움

연구참여자들은 넓게 느껴졌던 공동생활가정의 첫인상과 달리 살면서 비좁음을 체감하였다. 이전에 비좁고 답답했던 곳에서 생활했던 경험 때문에 혹은 넓은 곳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에 연구참여자

들은 좁고 답답함이 느껴지는 곳에는 되도록 있고 싶지 않아 했다. 연구참여자들의 과거 주거환경 경험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방을 혼자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3명이 사용하지만 넓고 빛이 잘 드는 방으로 바뀌달라 요청해 방을 바꿨다고 했다. 채광이 좋지 않았던 방을 바꿀 수 없었던 연구참여자는 잠잘 때만 방에 들어갔다. 또한 베란다 없이 지어진 다세대주택에 공동생활가정이 설치된 경우, 빨래 건조대를 비좁은 거실에 두어야 해서 습기와 냄새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해야 했다. 연구자가 방문했을 때에도 좁은 거실 한쪽에 놓인 건조대에는 빨래들이 널려있었고, 세제 냄새가 섞인 습한 실내 공기는 환기를 해도 탁했다. 채광과 통풍은 여럿이 방을 사용하더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주거환경의 조건이었다.

제가 방에 들어가기가 싫어해요, 방에. 방에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방에서 좀 잠을 자긴 하는데, 이렇게 방이 편하지는 않아요. 밤에 잘 때 외에는 편하지는 않아요.... 방이 넓지도 않고 약간 햇빛도 잘 안들고 그니까 좀 답답해요.(연구참여자 F)

#### 3) 미적인 아쉬움

공동생활가정의 실내의 환경에서 심미적인 요소를 찾기란 쉽지는 않다. 대부분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 골목은 좁고, 집 내부의 벽은 밋밋한 그대로의 벽이거나 그곳이 시설임을 말해주는 듯 행사 소식 안내문이나 행사 사진 등이 걸려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생활가정의 주택으로서 보호의 기능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미적인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들을 경험하

고 있었는데, 특히 공동생활가정 이전 생활에서 자신이 혼자 사용하는 방이 있었거나 공동생활가정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했던 경우 미적인 부분을 아쉬워했다. 이러한 공동생활가정의 미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은 여성 연구참여자들이 주로 언급하였는데, 이들은 벽지의 색, 커튼, 집안을 꾸미는 소품 등에 관심을 보였다.

여는 가정집 분위기 나게 꾸며 놓기는 했어요. 벽에 사회복지 지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보기 싫다고 떼고 거기다가 실로 만든 장식품을 걸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싸구려 티 나고 빈티 나고 이왕이면 좋은 거 갖다 놓으면 좋는데... 약간 좀 보통 집 사는 수준으로라도 괜찮은 것 갖다 놓으면 좋는데... 주방에 들어가는 입구에 꽃을, 조화를 달아놨는데 거기는 너무 진짜 싹티 나요. 완전히 진짜, 시설이니까 달아놓지, 일반가정에서는 그런 거 절대 안 달아 놔요.(연구참여자 G)

#### 4. 사생활과 공동생활의 경계와 조화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생활가정의 다양한 공간 중 동료와 함께 사용하지만 자신의 공간이기도 한 방과 화장실과 욕실, 거실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공간들은 공동생활가정 안에서도 사적인 공간인 동시에 공동의 공간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여럿이 하는 생활이기에 서로 경계를 지키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는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이 갖는 제약과 한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터득한 나름의 생활방식이 되었다.

##### 1) 방: 혼자와 함께, 두 감정이 공존하는 주된 생활공간

방은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가장 편안하고 마음 놓고 누울 수 있으며 쉴 수 있는 곳이었다. 가장 아쉬운 점은 나만의 공간이 없다는 점이었다. 한편 방은 함께 사용하는 동료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외로움을 덜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수 없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동료와 함께 있어서 든든하고 외롭지 않다면 불편을 감수하는 일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있었다.

방을 같이 쓰는 것이 든든하더라고요. 외롭지도 않고 또 의지할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연구참여자 A)

##### 2) 화장실 겸 욕실: 보호받고 싶은 가장 사적인 공간

화장실 겸 욕실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샤워나 목욕, 그리고 여성 거주자들에게는 옷을 갈아입는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따뜻한 물로 여유 있게 혼자서 샤워할 수 있다는 데 만족스러웠는데, 특히 이전에 폐쇄 병동, 기도원, 요양원 등 집단으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혼자서 느긋하게 목욕할 수 있는 시간은 소중했다. 그러나 4~5인이 사는 공동생활가정에서 화장실 겸 욕실의 부족은 여러 곤란함을 야기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 연구참여자들은 화장실 겸 욕실이 한 개인 경우,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잠글 수 없어서 난처하고 불안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물론 이후

샤워부스를 설치하여 불편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였지만 여성 연구참여자들은 화장실 겸 욕실은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하였다.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샤워하는 사람이 허락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어서, 뭐... 큰 일을 보진 작은 일을 보진... 참 그게 샤워를...(하기가 곤란하죠). 여자는 참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인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샤워하는 중에 다른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H)

### 3) 거실: 어울림과 호젓함이 있는 곳

연구참여자들에게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실은 다 함께 상을 펴고 식사를 하거나 TV를 보며 여가를 즐기는 곳,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한 여름밤 모두 나와 시원한 바다에 누워 잠을 자는 곳, 회의를 하는 곳으로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집안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어서 넓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마음이 편하고 좋은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런데 거실은 의외의 공간이기도 했는데, 개인 공간이 부족한 공동생활가정에서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 호젓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연구참여자에게는 온전히 주어진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 주기도 하였다.

이 집에서 제일 편하고 좋아하는 곳은 거실이에요. 거실에서 얘기하고 편하게 쉬고, 이렇게 소파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눕지 않고 기대고, 다리를 올리고 있을 수도 있고, TV도 보고...(연구참여자 F)

## 5. 부대끼고 기대며 함께 살아감

주거환경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Newman and Goldman, 2008).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작은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한 순간들도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동료의 행동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을 받기도 하고, 시설장의 중재에 위로를 받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공동생활가정은 부대끼고 기대며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환경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 1) 때로는 힘이 되고, 힘겨움이 되는 동료들

연구참여자들은 비좁은 공간에서 살다 보니 알게 되는 동료들의 생활습관, 성격들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 더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자주 마주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방이 좁은데 세 사람이 사용해요. 잡자려면 좀 잡자리에 배려가 필요한 데... 그래서 원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이불을 접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세 사람이 잘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직도 말을 안듣고... (혼자 넓게 사용해서) 좀 그런 면이 있어요.(연구참여자 D)

### 2) 가족처럼 의지 되는 울타리, 원장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을 원장이라고 호칭했는데, 이들에게 시설장은 울타리와 같은 존재였다. 공동생활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은 주로 물리적 주거환경의 공간 여건상 발

생하는 문제들로 시설장의 중재가 필요하였다. 특히 이전에 정신장애인 동료들과만 생활해 본 적이 있다는 한 연구참여자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재 해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다며 한 공간에 여럿이 살 경우, 시설장과 같이 중재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시설장은 친가족이 해주지 못하는 따뜻한 돌봄을 친가족처럼 제공해주고, 공동생활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근데 형제, 자매들이나 친인척들이 못하는 것들을 여기서 해주시니까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고맙고, 감사하고, 여기 와서 친가족은 아니지만 원장님이 친가족처럼 대해주시고 이러는 게 상당히 좋게 영향을 받았어요.(연구참여자 D)

## 6. 바깥을 향한, 바깥에 의한 시선

주거환경의 무질서는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신화경·조인숙, 2018; Evans, 2003). 또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근린편의시설은 일상생활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최정민·박동찬, 2020). 공동생활가정을 둘러싼 외부환경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깨끗하고 편리한 동네에 만족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바깥을 향한 시선과 이웃에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것이 알려질까 의식하는 바깥에 의한 시선을 경험하고 있었다.

### 1) 깨끗하고 살기 편한 동네

연구참여자들이 이전에 살았던 주거환경은 소음으로 늘 어수선했고, 주변은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날이 갈수록 더러워지는 곳이었다. 반면 현재 살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이 위치한 동네의 깨끗하게 정돈된 환경은 연구참여자들의 생활 만족감을 높여주었고, 편리한 교통편이나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등은 일상의 여유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예전에 살았던 주거시설이 있던 동네는 집은 새 집이었는데 동네가 지저분했어요. 근데 여기는 깔끔하면서 집들이 다 좋으니까, 이렇게 부자동네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여기를 선택했죠. 그런데 집(공동생활가정)도 좋은 거예요. 좋아요.(연구참여자 F)

### 2) 이웃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감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 외부의 사회적 환경은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에 늘 불안과 염려를 동반했다. 다세대주택이라 현관 입구에서 성인 남자들 혹은 여자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궁금해하는 이웃들도 있기에 혹여라도 알려지면 쫓겨나지 않을까, 연구참여자들은 불안감을 내비쳤다. 특히 연구를 위한 면접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조현병 환자의 살인사건이 연일 보도되었던 영향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시설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이웃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있었다.

여기는 주변 환경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 같고요.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지역주민들이 저희가 여기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만약 갑자기 알게 되어서 나가라고 하면 어떡할까,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문 여닫고 나갈 때마다,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조심해서 나가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혹시 들여다보거나 알게 될까봐...(연구참여자 B)

## 7. 내 생활과 삶이 바뀜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은 연구참여자들의 생활과 삶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가깝게는 일상의 생활습관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으며, 그 변화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의 시야는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꿈꿀 수 있을 만큼 넓어졌다.

### 1) 깨끗한 환경에 스며들

공동생활가정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정돈하는 일상들이 쌓이고 청결한 곳에 사는 좋은 점을 알게 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깨끗한 곳에 사니 자신의 외모도 청결하고 단정하게 관리하고 싶어졌다. 공동생활가정의 깨끗한 환경은 연구참여자들의 몸과 의식, 그리고 일상에 스며들었다.

여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좀 더럽게 입으면 안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내 몸을 좀 더 청결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되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일찍, 귀찮더라도 일찍 일어나서 잘 씻고 해야겠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피해를 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연구참여자 C)

### 2) 어울려 사는 즐거움을 알게 됨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중 사회적 환경은 여럿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중요한 요

소이다.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생활은 정신장애로 인해 외롭게 생활하던 연구참여자들에게 어울려 사는 즐거움을 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유롭게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서서히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어감을 경험하였다.

여기 살면서 다른 사람 입장도 헤아리는 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럿이 사니 혼자일 때보다 마음이 더 편안하게 느껴져요.(연구참여자 A)

### 3)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갖게 됨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꾸게 되었다. 비록 최대 3년간 생활할 수 있지만 안정된 주거환경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중에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고, 미래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제는 떠도는 삶이 아닌 어딘가에 정착하여 살고 싶어졌다는 마음의 변화였다.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생활은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주거계획을 세우게 했고,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은 미래에 살고 싶은 집의 기준이 되었다.

요즘엔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혼자 살게 된다면 방 하나에 거실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그리고 에어컨이라든지, TV라든지, 냉장고.. 기본적으로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평생 목표예요. 그게.(연구참여자 C)

## V. 결론

이 연구는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에 대한 정신장애인의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난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에 대한 경험은 열악했던 환경 속에서의 삶에서 평범한 일상과 미래를 준비하는 보통의 환경에서의 삶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따뜻하고 자유로우며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의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 외에 공동생활가정의 비좁은 공간으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사생활 보장 등의 어려움, 주거환경의 심미적 요소에 대한 고려 등 주거환경에서 미흡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곳으로서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 조성의 필요성이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공동생활가정의 입소정원은 4~6인으로 조정되었으나, 연구참여자들은 여유 있는 면적과 공간구성, 채광과 통풍, 심미적인 요소 등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이는 공동생활가정이 지역사회를 터전으로 삶을 준비하는 재활시설로서의 기능 수행 뿐 아니라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사람다운 삶을 위한 환경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 설치를 위한 최저 기준의 충족이나 시설 기준의 변경뿐 아니라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 조성 전반에 대한 관점의 전환과 거주자를 고려한 계획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예컨대 정신장애인의 경우, 대인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취

약하기에 대인관계를 촉진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공간 디자인, 심신의 안정과 심미적 효과를 고려한 색채와 디자인의 활용 등을 주거환경 조성 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최근 노인, 아동, 장애인 시설 등에 도입되고 있는 이용자의 심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의 향상 등을 건축환경에 적용한 치유환경개념과 근거기반디자인을 들 수 있다(최명민·이해경, 2015).

둘째, 공동생활가정 시설설치 기준에서 세부 면적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의 필요성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생활가정의 생활공간에 대해 '넓다' '좁다'라는 표현을 자주 언급하였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기 전에는 주로 '넓다'라는 표현을 하였으나 생활한 이후에는 '좁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은 설치기준인 1인당 거실 면적(시설 내 침실+거실/정원)이 모두 4.3제곱미터 이상으로 법적인 설치 조건을 충족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거실 면적이 시설 내 모든 침실과 거실을 포함한 면적으로 공간에 포함되는 가구나 집기의 점유공간 등에 대한 고려가 없고, 실제 침실을 사용하는 인원은 고려하지 못하여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산출된 면적보다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설치기준이 거실 면적으로 산출된 까닭에 실제 공동생활가정의 거실은 넓으나 방 면적은 좁아 연구참여자들은 비좁은 방에서 2~3인이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다. 실제 국의 주거시설 면적기준과 비교할 때 현 공동생활가정은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구나 집기를 제외한 내부 단위 공간별 구체적인 면적 기준을 제안하거나 실제 단위공간별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공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에서 사생활과 공동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의 모색이다. 공동으로 생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주거환경 관련 연구들에서 공통으로 강조되는 것이 거주자들의 사생활 보장이다(박향경·권자영·최명민, 2015; 백은령·이은미, 2012; Randall, 2003; Tsemberis et al., 2003).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은 공동생활 속에서도 물리적 환경 지원을 통해 일반가정과 같은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각자의 개별 공간에서 최대한의 사생활 보장, 식사, 휴게, 오락 활동을 통한 공동생활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사생활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 계획이 필요하다(권오정, 2012).

현재 공동생활가정 침실의 경우 면적 기준과 입소정원 등을 고려하여 2~3인이 한방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주자의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지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며(백은령·이은미, 2012), 가능한 1인 1실이나 1인 2실 등 사적 공간이 보장된 공동생활가정 유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가장 사적 공간인 화장실(목욕실)은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수준의 공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화장실과 목욕실을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거주하는 인원에게 맞추어 공간을 분리시켜 확보하거나, 현재 목욕실만 제시되어 있는 법적 설치기준에서 화장실과 목욕실을 분리하여 소요공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요구사항은 대부분의 공동생활가정이 공공임대주택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보수 및 지원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소유 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

주택공사(LH)와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시설 특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내부 공간을 개선한 후 임대하거나, 기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지원센터나 주거복지센터 등과 상시 지원 협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넷째,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에서 사회적 외부 환경에 대한 고려이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산다는 것은 편견과 낙인의 파도를 어떻게 타고 넘으며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생존의 문제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생활가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출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내쫓김(추방)될 수도 있다는 내재된 불안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정신장애인의 주거시설 생활경험에 관한 김도윤(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불안은 공동생활가정이 4~5인의 성인이 모여 사는 시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갖는 부담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은 자신이 이웃에 알려지기를 기꺼워하지 않듯이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거주지 보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요구된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주거만족도에서 거주지 보안이 주요한 요소로 지목되는 것과 같다(Brolin et al., 2015). 공동생활가정의 거주지 보안은 거주자의 안전과 생활 보장, 나아가 지역사회 적응과 통합의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웃, 지역사회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인식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의 형태와 보다 다양한 주거서비스 유형을 지속해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정신장애인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이는 존 롤스의 말처럼 가장 차별받는 이들(the disadvantage)을 위한 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박신영, 2013; 배은미·박희정, 2017 재인용).

다섯째, 시설 운영과 공동생활가정 거주자들의 생활서 물리적 주거환경과 거주자의 심리사회적 측면이 상호연관성이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한 반영과 실천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양가감정을 경험하였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원인 중 하나는 비좁은 물리적 주거환경과 동료들과 공간을 공유하며 생활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명시적 혹은 암묵적 규칙과 관련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공동생활가정의 안전하고 안정된 심리적 환경 조성에 시설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물리적 주거환경을 바꿀 수 없는 현실에서 시설장이 거주자 간의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주거환경과 거주자들의 심리적인 측면이 상호 관련 있음을 알고 이를 문제 예방과 해결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주거서비스 제공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서 물리적 주거환경이 거주자들의 심리, 정신건강, 대인관계 등에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시설운영에 반영하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서울 지역 소재의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주거환경 경험과 인식을 탐색한 것으로, 이 연구의 결과로 지방 소재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에서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주거환경에 대해 거주 정신장애인의 관점에서 탐색해봄으로써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책적 제언을 한 점은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후속연구로서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과 정신건강, 삶의

질 등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양적 연구의 수행이나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 경험에 대해 치유환경적 관점 등을 적용한 사례연구 등이 수행된다면 더 구체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조정에 대한 제언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참고문헌

- 강현아, 2010, “빈곤이 위험한 지역사회 환경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1(3): 327~348.
- 권오정, 2012, “미국 소규모 장애인 주거시설 거주환경 특성 사례 연구”, 『한국주거학회 2012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4(1): 391~396.
- 김도윤, 2009, “정신장애인의 주거시설 생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1: 183~220.
- 김슬옹, 2009, 『담론학과 언어분석: 맥락, 담론, 의미』, 서울: 한국학술정보.
- 남세현·변경희·김동기·이미정·김용혁·윤덕찬, 201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박신영, 2013, “지원주택(주택+서비스)은 반드시 도입되어야만 한다”, 『도시와 빈곤』, 104: 7~11.
- 박향경·권자영·최명민, 2015, “지적장애인의 주거환경변화가 거주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대규모생활시설에서 소규모생활시설로 전환한 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4: 263~289.
- 백옥미, 2018, “노인의 고독감에 미치는 거주환경 만족의 영향: 거주유형별 다집단분석”, 『보건사회연구』, 38(4): 164~195.
- 배은미·박희정, 2017, “정신장애인의 지원주거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1): 59~87.

- 백은령·이은미, 2012, “장애인 그룹홈 거주자의 정주감과 주거환경개선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9): 211~234.
- 보건복지부, 2019a, 「정신건강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9b,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평가지표」.
- 신화경·조인숙, 2018, “주거환경 무질서 인식과 주관적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9(2): 91~99.
- 안은희, 2014, “AHP 를 활용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치유환경 요소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0(10): 63~70.
- 이광수·이정수, 2016,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지 및 거주공간 특성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4): 199~208.
- 이복실·전미자·김창식·이의정·간기현, 2013, 「복지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인 거주시설 모형 설계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전신현, 2004, “거주지역환경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1(2): 1~22.
- 장해경·이용표·박경수, 2015, “정신장애인의 제도적 공간 거주 경험”, 『서울도시연구』, 16(3): 189~208.
- 정현주, 2019,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을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21(3): 51~86.
-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자성(역), 2010,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접근』, 서울: 학지사(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nd ed., New York: Sage Publications)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019, “정신건강동향”, 12: 1~4.
- 최고야, 2018, “정신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 거주 체험”,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명민·이해경, 2015,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건축환경 변화가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 『보건사회연구』, 35(2): 608~639.
- 최병숙·박정아, 2012, “한국복지패널연구 자료를 기초로 주거환경과 우울감 및 자존감과의 관계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3(5): 75~86.
- 최정민·박동찬, 2020, “주거환경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및 중요도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8(1): 1~20.
- 최희용·서은혜·전희정, 2020, “도시의 사회적 다양성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다수준모형을 활용하여”, 『지역연구』, 36(1): 69~88.
- Berg, L. D., 2009, *Discourse analysis.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pp. 215-221)*, London: Elsevier. Retrieved from [https://www.academia.edu/2044710/Discourse\\_Analysis\\_Encyclopedia\\_of\\_Human\\_Geography](https://www.academia.edu/2044710/Discourse_Analysis_Encyclopedia_of_Human_Geography). London: Elsevier.
- Brolin, R., Rask, M., Syrén, S., Baigi, A., and Brunt, D. A., 2015, “Satisfaction with housing and housing support for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36(1): 21~28.
- Browne, G. and Courtney, M., 2004, “Measuring the impact of housing on people with schizophrenia”, *Nursing Health Sciences*, 6(1): 37~44.
- Brunt, D. and Hansson, L., 2004, “The quality of life of persons with severe mental illness across housing settings”, *Nordic Journal of Psychiatry*, 58(4): 293~298.
- Evans, G. W., 2003, “The built environment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urban health*, 80(4): 536~555.
- Forchuk, C., Nelson, G., and Hall, G. B., 2006, “‘It’s important to be proud of the place you live in’: Housing problems and preferences of psychiatric survivors”,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42(1): 42~52.

- Kloos, B. and Shah, S., 2009, "A social ecological approach to investigating relationships between housing and adaptive functioning for person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4(3~4): 316~326.
- Nelson G., Sylvestre J., Aubry T., George L., and Trainor J., 2007, "Housing choice and control, housing quality, and control over professional support as contributors to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community adaptation of people with severe mental illness", *Adm Policy Ment Health*, 34(2): 89~100.
- Newman S. and Goldman H., 2008, "Putting housing first, making housing last: housing policy for persons with severe mental illness", *Am J Psychiatry*, 165: 1242~1248.
- Randall, B., 2003, *Breaking Down the Barriers: Social Hous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Europe*, CECODAS,
- Shepley, M. M., Pasha, S., Ferguson, P., Haffcut, J. C., Kiyokawa, G., and Martere, J., 2013, *Design research and mental and behavioural health facilities*. The Center for Health Design: Concord, CA.
- Shepley, M. M. and Pasha, S., 2017, *Design for Mental and Behavioral Health*, New York: Routledge,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2012, SAMHSA's working definition of recovery, Retrieved from <https://blog.samhsa.gov/2012/03/23/samhsa-working-definition-of-recovery-updated>
- Tsemberis, S., Rogers, E. S., Rodis, E., Dushuttle, P., and Skryha, V., 2003, "Housing satisfaction for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J. Community Psychol.*, 31: 581~590.
- Wahl, H. W., 2001, *Environmental influences on aging and behavior*, 215~237, in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5th, Edition, edited by J. E. Birren and K. W. Schaie, Sandiego, CA: Academic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20년 6월 24일**

**1 차 심 사 완 료 일 : 2020년 9월 16일**

**최 종 원 고 채 택 일 : 2020년 9월 29일**